

코로나 물렸거라... 훈련장 대신 옥상 훈련 구슬땀

스포츠 선수들의 루프탑(Rooftop) 훈련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선수들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세계 주요 훈련장과 운동장이 줄어들 문을 닫아걸자 자기집 지붕 등지에서 셀프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쿠바에서는 옥상 훈련, 연주가 낯선 풍경이 아니다. 집에서 자기격리 중

인 선수, 댄서, 음악가 등이 줄줄이 지붕을 훈련장과 연습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사격에서도 선수들이 옥상훈련장을 애용하고 있다. 훈련 장소가 없기 때문이다. /유연재 기자 yiyu@



인도 펜싱 선수.



쿠바 무술인.



쿠바 근대5종 선수.

/연합뉴스

조선이공대 야구단 생긴다...광주 세번째 창단

동강대·송원대 이어 ...이달 창단 신청 감독에 김부관...선수 40여명 선발 경기력 향상·선수 유출 예방 기대

등을 막는 효과가 기대된다. 조선이공대는 지난 30일 '프로야구 1000만 관객 시대'가 도래하고 야구가 국민 스포츠로 각광받고 있는 점에 주목, 우수선수의 역의 유출을 막고, 대학야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야구부를 창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동강대, 송원대에 이어 광주에서 세번째 야구단이 창단한다. 광주지역에서 3개 대학 야구단이 운영됨에 따라 경쟁을 바탕으로 한 경기력 향상과 역의 선수 유출

조선이공대는 야구부 창단을 위해 지난해 11월 준비위원회를 결성했고, 5월 중 전남 영광군과 숙소, 훈련, 부대시설 제공 등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방

침이다. 훈련장소로 쓰일 영광 대마산단은 현대식 야구장과 천연잔디, 야간조명시설까지 갖추고 있으며, 조선이공대는 경기장과 보조훈련장, 선수단 숙소 사용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5월 중 대한소프트볼협회에 야구부 창단 신청을 접수하고, 11월까지 1학년 재학생들을 중심으로 40여 명의 선수를 선발할 예정이다. 초대감독인 김부관 감독은 화순군 초·중·고 야구팀을 창단, 25년 동안 학생들을 지도했으며, 유명

프로야구 선수 배출, 전국대회 우승과 대통령기 준 우승 수상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학생야구 조련에 지도력이 검증된 감독이다. 김 감독은 "빠른 시간 내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운영보다는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기본 기술을 탄탄하게 연마하는데 주력하겠다"며 "더불어 바른 인성 함양을 통해 미래사회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업과 운동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penfoot@kwangju.co.kr

여자바둑리그 선수선발식 여수 거북선, 김혜민 지명 랭킹 1위 최정 보령머드

한국 여자바둑계의 절대 강자 최정 9단이 올 시즌 여자바둑리그는 고향 팀에서 뛰게 됐다. 최정은 29일 서울 성동구 마장로 한국기원에서 열린 2020 한국여자바둑리그 선수선발식에서 고향팀 보령 머드에 1지명으로 뽑혔다. 이날 선수 선발식에는 보령 머드(감독 문도원)와 서울 부광약품(감독 권호진), 부안 금소소금(감독 김효정), 서귀포 칠십리(감독 이지현), 여수 거북선(감독 이현숙), 포항 포스코케미칼(감독 이영신), 인천 EDGC(감독 조연우), 삼척 해상케이블카(감독 이용찬) 등 8개 팀이 참가했다.

8개팀은 선수 선발에 앞서 지역 연고선수와 보호 선수를 사전 지명했다. 그 결과 충남 보령이 고향인 최정은 신생팀 보령 머드, 이규진 2단은 부안 금소소금의 지역연고선수로 뽑혔다.

또 서울 부광약품은 지난 시즌 주장 김재영 6단을 보호지명했으며, 부안 금소소금은 역시 주장 오유진 7단과 2지명 허서현 초단을 보호선수로 묶었다.

선수 선발식에서는 1순위로 인천 EDGC가 조승아 3단을 선택했으며, 여수 거북선은 김혜민 9단, 서귀포 칠십리는 오정은 4단, 포항 포스코케미칼이 박지은 9단, 삼척 해상케이블카가 조혜연 9단을 각각 주장으로 뽑았다.

지난 1월 입단해 국내 프로기사 중 가장 막내지만 '천재 기사'로 주목받는 김은지 초단은 2지명에 삼척 해상케이블카의 부름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 여자바둑리그는 8개 팀이 더블리그로 총 14라운드를 펼친다.

팀간 대결은 3판 다승 제(장고 1국, 속기 2국)로 승부가 가려진다. 개막전은 5월 21일 서울 부광약품과 부안 금소소금의 대결로 막을 올린다.

상위 4팀은 포스트시즌에 진출해 준플레이오프-플레이오프-챔피언결정전 순서로 우승팀을 가린다.

우승 상금은 5500만원, 준우승 상금 3500만원, 3위 2500만원, 4위 1500만원을 받는다. 팀 상금과 별도로 정규리그 매 대국 시 승자 100만원, 패자 30만원의 대국료가 지급된다. 여자바둑리그는 매주 목·일요일 오후 6시 30분 열린다. /연합뉴스

KLPGA 14일 개막...시드권자 92명 전원 출전

해외파·국내파 스타들 총출동

오는 5월 14일 개막하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KLPGA 챔피언십이 한국 여자골프 해외파와 국내파 간판급 선수들 대결장이 됐다. 박성현(27), 김세영(27), 김효주(25), 이정은(24) 등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정상급 선수들이 출전 신청을 마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그동안 이 대회 출전을 저울질하던 세계랭킹 3위 박성현은 경기력을 점검하고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는 한편 오랫동안 팬들에게 경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아쉬움을 털어내기 위해 출전을 결정했다.

이번 시즌 들어 단 한 차례도 대회에 나서지 않았던 박성현은 KLPGA 챔피언십이 올해 처음 치르는 공식 대회다.

박성현이 국내 대회에 나서는 것은 지난해 10월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이후 6개월 만이다.

김효주 역시 올해 첫 출전이다. 김효주 역시 출전 여부를 놓고 고심하다 너무 경기를 오랫동안 뛰지 않아 훈련 성과를 점검하고, 팬과 스폰서의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 출전하기로 마음을 정했다.

일찌감치 출전 의사를 밝힌 김세영과 이정은도 예정대로 출전을 확정했다.

일본 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가 주된 무대인 이보미(32)와 안선주(33), 배선우(26)도 출전

한다. 5월이면 LPGA투어와 JLPGA투어가 한창일 때라 이렇게 많은 정상급 해외파 선수들이 국내 대회에 출전하기 어렵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화려한 라인업이 성사된 셈이다.

작년 상금왕과 대상, 다승왕을 모두 휩쓴 최혜진(21)을 비롯해 장하나(28), 이다연(23), 임희정(20), 조아연(20) 등 국내파 스타 군단은 한명도 빠짐없이 출전에 해외파와 뜨거운 우승 경쟁을 펼친다.

올해 처음 열리는 KLPGA투어 대회인 KLPGA 챔피언십에는 KLPGA투어 시드권자 92명 전원이 출전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PGA 투어 2승·3승 선수가 우승상금 2400만원 대회 출전

2017년부터 5월이면 미국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 토글스틱 골프클럽에서 열리는 스코츠데일 애리조나 오픈 골프 대회는 어떤 투어에도 속하지 않은 이른바 독립 대회다.

출전 선수 156명은 참가비 895달러~1095달러를 낸 선착순으로 정한다. 참가비는 출전 신청이 빠르면 싸고, 늦을수록 비싸다.

총상금은 12만5000달러(약 1억5000만원)에 불과하고 우승 상금은 2만달러(약 2400만원)이다.

아마추어도 출전할 수 있는데, 자격이 아니라 공인 핸디캡 5 이하 하나뿐이다. 핸디캡 1.4 이하만 출전하는 US오픈 예선보다 수준이 낮다.

5월 12일(한국시간)부터 나올 동안 열리는 올해 대회에는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선수가 여러 명 출전할 예정이라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PGA투어 통산 2승을 올렸고 현재 상금랭킹 34위에 올라 있는 케빈 스트리틀(미국)과 투어 3승을 따낸 커크 트리플렛(미국)도 출전한다.

스코츠데일에 사는 둘은 PGA투어가 중단된 바람에 석 달 넘게 개인 훈련을 하다 실전 감각 회복을 위해 출전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미니투어에서 2승을 올린 알렉스 체카(독일)나 칼트 노스트(미국)의 이름도 출전 선수 명단에 있다.

대회 운영 책임자 라이언 프레이는 지역 언론과 인터뷰에서 "우리 대회 출전 선수 수준이 결코 낮은 건 아니었지만, 올해는 최강의 출전 선수 명단을 갖추게 됐다"고 자랑했다. /연합뉴스

PGA 시니어투어 8월 재개...최경주 데뷔전 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된 미국프로골프(PGA) 시니어투어가 8월 초 다시 문을 연다.

만 50세 이상만 출전하는 PGA 시니어투어는 8월 1일(한국시간)부터 사흘 동안 미시간주에서 열리는 엘리 챔피언십부터 2020년 시즌을 다시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6월 12일 재개하는 PGA투어보다 7주나 늦다. 게다가 갤러리 입장을 허용하는 시점도 정하지 않

아 무관중 개최 대회도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8월 재개가 확정되면서 연기했던 3개 대회가 새로운 개최 일정을 받았다.

7월에 열려던 브리지스톤 시니어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을 8월 15~17일로 옮겼고, 5월 말 개최 예정이었던 프린시펄 채리티 클래식은 9월 5~7일로 일정을 바꿨다.

5월 초 열릴 예정이던 리전 트레이디션은 9월 25~28일에 치른다.

다만 8월에 열려던 디스 스포팅 굿즈 오픈은 취소됐다.

조정된 일정대로 진행해도 시니어투어는 올해 7개 대회가 없어진 셈이다.

PGA 시니어투어는 지난 3월 9일 아니 엘스(남아프리카)가 시니어투어 첫 우승을 올린 호그 클래식 이후 중단됐다.

5월부터 시니어투어 입성 자격이 생기는 최경주(50)는 8월에 개최하는 브리지스톤 시니어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데뷔전을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어벤져스: 엔드게임
2관	어벤져스: 엔드게임,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서치 아웃
3관	마이 스파이, 나의 청춘은 너의 것
4관	호텔 레이크
5관	기생충: 흑백판
6관	기생충: 흑백판
9관	라라랜드,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7관	씨네캐슬 1917, 서치 아웃
8관	씨네캐슬 오픈 더 도어, 어벤져스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기획전시 **강남구 (화양연화)**
2020.4.10(금) ~ 5.10.(일)
광주문화예술회관 갤러리

기획공연 포커스 II - 봄의 세레나데 **Spring of Serenade**
2020. 5.12.(화) PM 7:00
광주문화예술회관 유튜브 생중계

GAC기획공연 11시 음악산책 **윤한의 그대를 그리다**
5.29. (수) AM 11:00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즐거움 **문화산책**